



제목	Life and Society in the Hittite World
발행언어	영어
발행처	Oxford University Press
발행일	2004. 9. 16.
저자	Trevor Bryce
출판도시	Oxford
페이지수	328
ISBN 또는 ISSN	978-0199275885

내용 요약

이 책은 고대 근동에서 한 때 최고의 정치적 군사적 힘을 보유했던 고대 히타이트인들의 생활과 사회를 유물과 기록물들을 토대로 재창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총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왕과 궁전, 궁전 관리를 주제로 왕과 관리의 상하 주종관계와 왕의 의무, 왕의 축첩(畜妾)제도 등 왕의 권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2장 일반 백성들과 법에서는 히타이트 제국의 통치기반이 되는 법의 적용과 집행을 다루고 있으며, 근친상간, 강간, 간통, 수간(獸姦) 등 성(性)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3장에서 6장까지는 필경사와 농부, 상인, 군인 등 고대 히타이트의 직업군을 소개하고 있다. 7장에서는 결혼을 주제로 지참금과 혼수품 등 혼인 전 양가(兩家)가 합의해야 할 문제들과 자유민과 노예의 결혼, 처가살이, 형사취수(兄死娶嫂), 일부다처제, 이혼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8장에서 12장은 신들의 세계, 질병의 치료, 죽음과 매장, 사후세계, 축제와 제사, 신화 등 종교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히타이트는 다양한 신들을 하나의 신전에 모셨는데 이는 ‘천의 신을 가진 사람들’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히타이트 제국이 주변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타문화와 종교를 흡수하여 히타이트화 하였기 때문이다. 13장은 수도인 하투샤에 대해, 14장은 그리스와 메소포타미아 문명 및 아나톨리아 문명을 연결한 문화적 전이에 대해 논하고 있다.